



2018
MAY

vol.3

City & Art
forum

SUNGKYUNKWAN
×
WASEDA



プログラム

第3回都市と美術フォーラム

City and Art Forum

成均館大学×早稲田大学

5月11日（金）

於 早稲田大学 戸山キャンパス 33号館16階第10会議室

研究発表

9:30-10:00	開会の挨拶	坂上桂子（早稲田大学） 慎重進（成均館大学）
10:00-10:35	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とロックフェラー家 —アンリ・マティスによる暖炉装飾を通して	小野愛莉 （早稲田大学・修士課程）
10:40-11:15	《家具付の貸家》にみるローランサンとパリ	山田茉委 （早稲田大学・修士課程）
11:20-11:55	街に色を与える —交流と協力を通じた都市デザイン、キャンパスタウン を中心に	李智珉 （成均館大学・修士課程）
12:00-12:35	路地中心の修復型居住地の整備 —北亭城郭街を中心に	李基薫 （成均館大学・博士課程）

13:15-14:15 昼食会（大隈タワー8階 森の風）

見学会

5月11日

早稲田キャンパス、大隈講堂
銀座、天王洲アイル、お台場

5月12日

東京駅、日本橋、六本木

프로그램

제 3 회 도시와 미술포럼

City and Art Forum

성균관대학교 × 와세다대학교

5 월 11 일 (금)

와세다대학교 토야마캠퍼스 33 호관 16 층 제 10 회의실

연구발표회

9 : 30-10 : 00	개회 인사	사카가미 케이코 (와세다대학교)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10 : 00-10 : 35	뉴욕 근대 미술관과 록펠러 가문 — 앙리 마티스의 난로장식을 통해서	오노 아이리 (와세다대학교 · 석사과정)
10 : 40-11 : 15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를 통해 보는 로랑생과 파리	야마다 마이 (와세다대학교 · 석사과정)
11 : 20-11 : 55	마을에 색을 입히다 —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대학마을을 중심으로	이지민 (성균관대학교 · 석사과정)
12 : 00-12 : 35	골목길 중심의 수복형 주거지 정비 — 북정성곽마을을 중심으로	이기훈 (성균관대학교 · 박사과정)

13 : 15-14 : 15 점심식사 (오오쿠마타워 8 층 모리노카제)

견학회

5 월 11 일

와세다캠퍼스, 오오쿠마강당

긴자, 텐노즈아일, 오다이바

5 월 12 일

동경역, 니혼바시, 롯폰기

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とロックフェラー家 — アンリ・マティスによる暖炉装飾を通して

小野愛莉（早稲田大学・修士課程）

はじめに

20 世紀のアメリカでは、美術館とコレクターが強く結びついていた。ヨーロッパ諸国に比べて歴史の浅いアメリカにおいて、美術館はコレクターからの基金による購入や寄贈から出発した歴史があり、時にはコレクター自身が美術館を創設し理事会を組織していた。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以下、MoMA）もまた、コレクターによって構成された理事会に経済的な面で依存していた。とくに MoMA 創設者であったアビー・A・ロックフェラーとその息子ネルソン・ロックフェラーは MoMA に多額の出資をしていた。同館の初代館長であったアルフレッド・バーは理事会役員たちの作品収集に関して助言をおこなっていたが、ネルソンに対しては別荘などの私的な空間に飾る作品の選択にまで介入し特別密接な関係を築いていた。

20 世紀に活躍したフランス人画家アンリ・マティス（Henri Matisse, 1869-1954）は、生涯母国を離れることはなかったが、彼の個人コレクターの多くはアメリカ人であった。1930 年にはじまったマティスとロックフェラー家の交流は、画家が死ぬまで約 25 年に渡って続いた。とくに、1938 年にネルソンがマティスに注文した暖炉装飾の制作を巡る背景には、バーとネルソンの複雑な関係を見出せる。本発表では、ネルソンがニューヨーク 5 番街にある自邸のために注文した暖炉装飾の制作を巡る背景とその作風から、MoMA 館長であったアルフレッド・バーとネルソン・ロックフェラーの、マティス作品への嗜好の違いを明らかにする。

1. ネルソンの自邸と暖炉装飾

1938 年、MoMA の建設計画によってロックフェラー家共同の邸宅が取り壊されることになったため、ネルソンは同年にニューヨーク 5 番街にある自邸を改装し本格的に移り住む。ネルソンはこの自邸の改装に伴い、リビングルームにあった 2 つの暖炉のうち 1 つの装飾をマティスに依頼した。部屋の四隅にみられる丸みや、暖炉装飾を囲う特徴的な曲線のフレームは、建築家ウォレス・K・ハリソンとネルソンの話し合いによって改装されたものである。20 世紀前半には暖炉よりも熱効率のよいストーブがアメリカで普及したが、暖炉は実用面だけでなく室内装飾として人々の生活の中心であり続けた。しかし当時の暖炉装飾のなかでも、絵画自体が暖炉全体を囲うマティスの暖炉装飾は、非常に特異であったと言える。

2. 暖炉装飾と 1930 年代の作品群

本作には、詩を読み上げる 1 人の女性とそれに耳を傾ける 3 人の女性がリラックスした様子で

描かれている。4人は大胆に簡略化された曲線によって画面いっぱいに描かれ、細部への描き込みはほとんどなく、画面の大部分は赤、緑、黒の大きな色面で構成されている。また右上の女性が着ているドレスは、画家がパリの市場で購入したお気に入りのドレスであり、暖炉のフレームに呼応するような曲線で描かれている。本作には1930年代のマティス作品に頻繁にみられた、簡略化された曲線による人体表現や同時代の優美なドレスへの興味が表れていると言える。

3. バーの美的理念と理事会への介入

しかしながらネルソンは暖炉装飾を注文する1938年まで、抑えられた色調と厳格な直線で描かれたマティス作品を収集していた。このような作品収集の背景には、MoMA館長であったバーの影響を見出せる。バーは1930年代、抑えられた色調と近寄りたたい雰囲気を持った禁欲的絵画を評価しており、マティス作品に関しては1917年までの作品がそれにあたると考えていた。バーはこの美的理念に則り、理事会役員たちに作品収集の助言をしていたため、実際にこの当時ネルソンが所有していたマティスの油彩画は1917年以前の作品に限られている。さらにバーは一族の別荘に飾る作品の選択や展示替えに関与するなど、その私的な空間にまで介入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ネルソンの自邸の暖炉装飾はバーが評価した禁欲的絵画とは様相が異なっていた。

4. バーと理事会の対立

暖炉装飾の作風がそれまでネルソンが収集していたマティス作品と異なる理由として、この当時におけるバーとネルソンの関係の変化が考えられる。バーは、同時代の芸術を普及させるという近代美術館の館長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と同時に、運営費をまかなう理事会役員たちを満足させる展覧会を企画する必要がある。しかしバーが企画した、1936年の「幻想芸術・ダダ・シュルレアリスム」展は理事会に理解されず、激しい非難を浴びる。当時理事長であったアンソン・グッドイヤーは、理事会による展覧会への関与が必要であると主張しバーへの不信感をあらわにした。ネルソンもこの姿勢に同調しバーから距離を置いたために、暖炉装飾の注文にあたってバーの助言よりも自らの嗜好を優先したと考えられる。

おわりに

ロックフェラー家は、バーの美的理念に影響を受けながら作品収集をしてきた。しかし、暖炉装飾に描かれたリラックスした様子で詩を楽しむ女性たちは、バーが評価した禁欲的絵画とは様相が異なる。バーとネルソンの関係の変化を考えると、暖炉装飾には美術館という組織の一員としてではない、ネルソンの個人コレクターとしての嗜好がみられる。ネルソンとバーは密接に関わりつつも、両者の美的理念は異なっていたと言える。

뉴욕 근대 미술관과 록펠러 가문 —양리 마티스의 난로장식을 통해서

오노 아이리 (와세다 대학교 · 석사과정)

서론

20 세기 미국에서는 미술관과 컬렉터가 강력한 상호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유럽 여러 국가보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미국의 미술관은 컬렉터들의 기금을 이용한 작품구입과 기증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때로는 컬렉터가 미술관을 창설하고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뉴욕 근대 미술관 (이하, MoMA) 도 컬렉터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제적인 면에 의존해 있었다. 특히 MoMA 창설자였던 에비 앨드리치 록펠러와 그의 아들 넬슨 록펠러는 MoMA 에 거액을 출자했었다. 같은 관 초대 관장이었던 알프레드 바는 이사회 위원들의 작품수집에 관련된 조언을 하곤 하였으나 특별히 넬슨에게는 별장 등 사적인 공간을 장식하는 작품의 선택에도 개입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0 세기에 활약한 프랑스인 화가 양리 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 는 평생을 프랑스에서 살았으나 그의 개인 컬렉터는 대부분 미국인이었다. 1930 년에 시작된 마티스와 록펠러 가문의 관계는 화가가 죽을 때까지 약 25 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1938 년에 넬슨이 마티스에게 주문한 난로장식은 바와 넬슨의 복잡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뉴욕 5 번가에 위치한 자택을 위해 넬슨이 주문한 난로장식의 제작 배경과 그 양식을 통해서 MoMA 관장이었던 알프레드 바와 넬슨 록펠러의 마티스 작품에 대한 취향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1. 넬슨의 자택과 난로장식

1938 년 MoMA 의 건설계획에 의해 록펠러 가문의 공동 자택이 철거되어 넬슨은 같은 해 뉴욕 5 번가에 위치한 자택을 리모델링하고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된다. 넬슨은 이 자택의 리모델링과 함께 거실에 있던 2 개의 난로 중 하나의 장식을 마티스에게 의뢰했다. 방의 네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곡선과 난로장식을 둘러싼 특징있는 곡선의 프레임은 건축가 윌리스 헤리슨과 넬슨이 의논하여 만든 것이다. 20 세기 전반에는 난로보다 효율적인 스토브가 미국에 보급되었으나 난로는 실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실내장식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회화 자체가 난로 전체를 둘러싸는 마티스의 난로장식은 당시에도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2. 난로장식과 1930 년대의 작품군

작품에서는 시를 읽고 있는 한 명의 여성과 이를 귀기울여 듣고 있는 3명의 여성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4명은 대담하게 간략화된 곡선에 의해 화면 가득히 그려져 있다. 이들의 세부 묘사는 생략되어 있고 화면의 대부분은 빨강, 초록, 검정의 큰 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른쪽 상단의 여성이 입고 있는 드레스는 화가가 파리의 시장에서 구입하고 마음에 들어하던 드레스이며 난로의 프레임에 호응하는 듯한 곡선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는 1930 년대의 마티스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간략화된 곡선에 의한 인체표현과 동시대의 아름다운 드레스에 대한 화가의 흥미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바의 미적 이념과 이사회 개입

그러나 넬슨은 난로장식을 주문한 1938 년 이전까지 억제된 색조와 엄격한 직선으로 그려진 마티스의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품수집의 배경에는 MoMA 관장이었던 바의 영향을 크다. 바는 1930 년대에 억제된 색조와 가까이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진 금욕적인 회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마티스의 작품에 있어서는 1917 년까지의 작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었다. 바는 이 미적 이념에 따라 이사회 위원들이 작품을 수집할 때 조언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넬슨이 소유하고 있었던 마티스의 유채화는 1917 년 이전 작품들 뿐이었다. 바는 록펠러 가문의 별장에 장식할 작품의 선정과 전시 편성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공간까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넬슨 자택의 난로장식은 바가 평가한 금욕적인 회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4. 바와 이사회에 대립

난로장식의 양식이 지금까지 넬슨이 수집해왔던 마티스의 작품과 다른 이유로 제작 당시 바와 넬슨의 관계 변화를 들 수 있다. 바는 근대 미술관의 관장으로서 동시대의 예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운영비를 조달하는 이사회 위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전시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바가 기획한 1936 년의 ‘환상예술 다다 초현실주의’전은 이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된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앤슨 굿이어는 이사회가 전시회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에게 불신감을 드러냈었다. 넬슨도 이 자세에 동조하여 바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난로장식을 주문했을 당시 바의 조언보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

록펠러 가문은 바의 미적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을 수집해왔다. 그러나 난로 장식에 그려진 편안한 자세로 시를 즐기는 여성들은 바가 높이 평가한 금욕적인 회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바와 넬슨의 관계 변화를 미루어 보면 난로장식에는 미술관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넬슨의 개인 컬렉터로서의 취향을 엿볼 수 있다. 넬슨과 바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다른 미적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家具付の貸家》にみるローランサンとパリ

山田茉委（早稲田大学・修士課程）

はじめに

マリー・ローランサン（Marie Laurencin 1883-1956）は、主にパリを中心に活動した画家である。1900年代初頭にはパブロ・ピカソやジョルジュ・ブラックらと共にキュビズムの運動に関わり、前衛芸術家の1人として制作活動を行なった。しかしローランサンは自らをキュビズムの画家と名乗ることはなく、あくまでも要素としてキュビズムを作品に取り入れ続け、晩年にかけて柔らかく淡い色彩の画風を確立していく。

1912年に描かれた《家具付の貸家》は、ローランサンがキュビズムからの離脱を見せ始める重要な転換期を示す作品と考えられる。画面内には、部分的にはキュビズムの手法の試みがみられるものの、色彩やモチーフの描写においてはそれまでの作品とは明らかに異なっ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また「家具付の貸家」という主題は、19世紀頃からパリに多く存在した家具付きアパートを指すが、これはローランサンに画家を志すきっかけを与えた重要な存在であった。この「家具付の貸家」を舞台に、ローランサンは自身の体験や思い出を描き込み、現実と空想の同居するローランサンの世界観を巧みに表している。本発表では《家具付の貸家》という作品を通して、パリという都市に生きるローランサンの同時代的な感性と、その新たな芸術表現を明らかにする。

1. 《家具付の貸家》とキュビズムからの離脱

1883年、パリにプチ・ブルジョワの娘として生まれたローランサンは、当初は母の勧めで教師を目指していたが、途中から画家を志すようになる。1900年に入ると本格的に絵画の勉強を始めるが、同じ画塾で出会ったジョルジュ・ブラックに感化され学校を退学する。そしてこの頃から、当時モンマルトルのアトリエ「洗濯船」に集っていた芸術家集団と関わるようになり、ブラックと並ぶキュビズムの指導者であるパブロ・ピカソや、後に恋人ともなるギョーム・アポリネールらと親交を結んだ。1908年頃にローランサンは「洗濯船」の芸術家たちを描き込んだ集団肖像画を描いており、彼らの親密さを伺うことができる。

しかし当時のローランサンの作品には、直線や格子模様、暗い茶褐色などのキュビズムの手法の試みはみられるものの、いずれも要素として取り入れるに過ぎなかった。そんな中1912年に描かれた《家具付の貸家》には、それまでのようなキュビズム風の技法も多少用いられつつ、晩年にかけてのローランサンの作品にも似た、グレーやピンクなどの色彩、淡いタッチなどが確認できる。この年ローランサンはアポリネールと破局し、外国で個展を開くなど画家として独自の路線を歩み始めていた。またその後には外国への亡命時代などを経て、パリの人気画家として活

躍するようになるが、その頃の作品にはキュビズムへのアプローチはほとんど見られない。このように《家具付の貸家》は、ローランサンのキュビズムへの試みと自らの新たな芸術表現が混在する、画家の重要な転換期を示した作品と言える。

2. 「家具付の貸家」という主題

そもそも本作に描かれる「家具付の貸家」とは、19世紀以降パリに広く普及していた家具付きのアパートを指す。しかしその実態は低所得者向けの安宿であり、時には結核の温床として機能することさえもあった。そんな家具付きのアパートは、中流階級の出身であるローランサンにとっては縁遠い存在のようにも思われる。しかしローランサンは自身の著作において、偶然見かけた家具付きの貸家の情景が、自らに画家を志す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たことを語っている。また当時、アポリネールとの交際を互いの母親に反対されていた事情もあり、2人は逢瀬の場としてこの家具付きのアパートを度々使用していた。このように「家具付の貸家」はローランサンにとって重要な主題であり、作品中の画面左の女性をローランサン自身とする指摘がなされている。

3. 作品分析

本作は、アパートの窓辺の人々を外から眺めるような構図を取る。描かれた3人の人物のうち、左の女性は恋人アポリネールを待つローランサン自身と言われる。残された習作よりも女性は華やかさを失い、破局後の憂鬱さを物語るようにも見える。また画面右のカップルは、ローランサンが回想した通り上半身をあらわにした女性が描かれるが、男性は葉巻を持ったアルルカンの姿をしている。アルルカンは当時ピカソも多く描いたモチーフであり、ローランサンの同時代的なまなざしが伺える。

さらに、壁に直接描かれた「MAISON MEUBLEE」の文字や、こちらへ迫るように描かれるカーテンの描写からは独特な装飾性が感じられるが、文字を描き込む行為はキュビズムの画家が用いた手法であり、ローランサンが影響を受けたと語るアンリ・マティスの同時代の作品にも確認できる。また通りに面したバルコニーは、ローランサンが晩年にかけて多用するモチーフで、印象派以降の画家たちもパリの街の表象によく用いた。これらを効果的に用いることで、ローランサンの作品は物語性を増し、現実と空想の同居する独特な世界観が見事に表されていると言える。

おわりに

《家具付の貸家》には、ローランサンに大き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た風景を舞台に、自らの体験や新たな芸術が表現されている。キュビズムなどの同時代芸術へのアプローチと、独自の画風形成への試みが混在する本作品は、ローランサンの長い画業においても重要と言える。現実と空想の間を曖昧にするような表現は、以後のローランサンの作品にも見られる装飾性につながり、ここにローランサンの新たな世界観の表出が指摘できると考えられる。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를 통해 보는 로랑생과 파리

야마다 마이(와세다대학교 · 석사과정)

서론

마리 로랑생 (Marie Laurencin 1883-1956) 은 주로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이다. 1900 년대 초반에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등과 함께 큐비즘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로랑생 본인은 큐비즘의 화가라 칭한 적이 없으며 큐비즘의 일부 요소를 작품에 도입하면서도 만년에는 부드럽고 옅은 색채의 화풍을 확립해 간다.

1912 년에 그린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는 로랑생이 큐비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중요한 과도기를 나타내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부분적으로 큐비즘의 기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색채와 모티브의 묘사는 지금까지의 작품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돋보인다. 또한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라는 주제는 19 세기경부터 파리에 다수 존재하던 가구가 딸린 임대 아파트를 말하나 이는 로랑생이 화가를 지향하게 되는 계기와 관련된 중요한 존재였다. 이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라는 무대 위에 로랑생은 자신의 체험과 추억을 그려내었고 현실과 공상이 동거하는 그녀의 세계관을 훌륭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라는 작품을 통해 파리라는 도시에 살았던 로랑생의 동시대적인 감성과 새로운 예술표현을 알아내고자 한다.

1.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와 큐비즘으로부터의 이탈

1883 년 파리의 뽀띠 부르주아집안의 딸로 태어난 로랑생은 당시 어머니의 권유로 교사가 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화가를 지향하게 된다. 1900 년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회화공부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학교에서 만난 조르주 브라크의 영향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당시 몽마르뜨에 있던 아틀리에 ‘세탁선’에서 모이던 예술가집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브라크와 같이 큐비즘의 지도자인 파블로 피카소와 추후에 연인사이가 되는 기욤 아폴리네르와 친분을 갖게 된다. 1908 년경 로랑생은 ‘세탁선’의 예술가들을 그린 집단 초상화를 제작하였고 이는 그들과 가까운 사이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당시 로랑생의 작품을 보면 직선과 격자모양, 어두운 다갈색 등 큐비즘의 영향이 남아 있으나 이는 모두 부분적인 요소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12 년에 그린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에서는 지금까지 보이던 큐비즘 스타일의 기법을 다소 사용하면서도 만년의 로랑생의 작품과도 비슷한 회색과 분홍색 등의 색채, 연한 붓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로랑생은 아폴리네르와 파국을 맞이하고 외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후 외국에서의 망명한 시기를 거쳐,

파리의 인기화가로 활약하게 되며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큐비즘의 영향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에는 큐비즘의 영향과 로랑생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표현이 혼재하며 화가로서 중요한 과도기를 나타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라는 주제

이 작품에 그려진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란 19 세기 이후 파리에 널리 보급된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말한다. 그러나 그 실체는 저소득자를 위한 값싼 숙소였으며 때로는 결핵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구가 딸린 임대 아파트는 중산층 출신인 로랑생에게 있어서 먼 존재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로랑생은 자신의 저작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의 정경이 자신이 화가를 지향하는데 영감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당시 아폴리네르와의 교제를 어머니가 반대하여 들은 밀회의 장소로 이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종종 사용했었다. 이처럼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는 로랑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며 작품 속 화면 왼편의 여성은 로랑생 본인이라 지적되고 있다.

3. 작품분석

이 작품은 아파트의 창문 주변 사람들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작품 속 3 명의 인물 중 왼편의 여성은 연인 아폴리네르를 기다리던 로랑생 본인이라 여겨지고 있다. 또한 오른편의 연인을 보면 로랑생이 회상했던 대로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과 함께 시가를 들고 있는 아를르강의 모습을 한 남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를르강은 당시 피카소도 자주 그린 소재였으며 이를 통해 로랑생의 동시대적인 시점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벽에 직접 쓰인 ‘MAISON MEUBLEE’ 라는 글자와 감상자쪽으로 쳐진 커튼의 묘사에서는 독특한 장식성이 느껴지며, 글자를 작품에 그리는 행위는 큐비즘 화가가 이용한 방법이며 로랑생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한 앙리 마티스의 동시대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리에 면한 발코니는 로랑생이 만년에 걸쳐 다용하는 모티브로 인상과 이후의 화가들도 파리의 도시의 모습을 표상하는데 자주 사용하였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로랑생의 작품 속 이야기적 요소가 증가하며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관이 훌륭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가구가 딸린 렌트하우스》에서는 로랑생에게 큰 영감을 준 풍경을 무대로 그녀의 체험과 새로운 예술이 표현되어 있다. 큐비즘 등 동시대 예술에 대한 접근과 자신만의 화풍을 형성하는 과정의 노력이 혼재하는 이 작품은 로랑생의 긴 화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과 공상의 사이를 애매하는 만드는 표현은 로랑생의 이후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장식성과 이어지며 이는 화가의 새로운 세계관의 표출이라 지적할 수 있다.

街に色を与える

—交流と協力を通じた都市デザイン、キャンパスタウンを中心に

李智珉 (成均館大学・修士課程)

共同研究者: 李枝妍、金受演

はじめに

街はそれぞれ固有の色を持つ。これは目に見える物理的な「色」であると同時に、この地域が持つ固有の雰囲気、特色、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比喩的に指す言葉でもある。これは街が持つ古い歴史と風景、そこでの人々の暮らしを通して形成され、人々のニーズと期待、動きによって変わっていく。このような観点から街に「色」を与えるということは、そこに住む人々の暮らしとニーズ、要求を反映させることと言える。

私が所属する成均館大学都市建築研究室では様々な地域で暮らす人々とともに地域固有の色を探し、作り上げるための活動と研究が行われている。本発表では私が住み、勉強している地域固有の「色」を探し出す過程を通して、人々の姿と街の風景について話したい。

1. 成均館大学とキャンパスタウンの物語

本発表で取り上げる成均館大学とそのキャンパスタウンは、ソウルの南、水原市栗田洞に位置する。栗田洞は古くから栗の木が多く栗畑と呼ばれたことに由来する地名であり、1980年代になって現在のような街の姿が形作られた。成均館大学は1978年にこの地に建設された。1970年代にはソウル市の人口分散政策により多くの衛星都市が建設され、広域交通の発展に伴い学校周辺に大規模なアパート団地が繁盛した。だが、アパートや家々と学校の間には密接な関係が結ばれず、塀を高くしたまま断絶されていた。道のほとんどはそうした塀にふさがれ、暗くさびれていた。そのため道の利用者は徐々に減り、夜にはゴミも多く、車で危険な場所となってい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欠如も一つの問題であった。学生と住民はこの街で働いて生活する時間よりも、ソウルなど外の街で過ごす時間がより長いと、自分の街に関心を持ち、各々が街に不満を持っていても意見を交わす機会がなかった。

2. 街が自分の色を見つける過程

2011年2月、成均館大学都市建築研究室は街やそこに暮らす人々と直接的な関係を結び始めた。そして7年を超す年月の間、行政と学校、住民がともに通りを改善し、街の色を見つけていくための様々な活動や研究、事業を行ってきた。

2011年、これらの関係は住民センターと大学の主導による住民教育から始まった。この教育を通して我々は住民たちとともに、街の課題や資源を見つけ、特色もなく、老朽化した通りを改善し、共同体を回復するための計画をたてるようになった。そのため、住民と大学、行政はそれぞ

れの役割を考えた上で協力関係を作り、個人はゴミ拾いや店舗前の花の世話など各々ができるちよつとした行動を約束し、ともに実践していった。このような努力が持続すると、街の物理的な環境改善のために行政から支援されるようになり、街の景観が改善され、余剰地が休憩場所になるなど明らかな変化が生じた。

改善された空間を持続的に管理し、活用するためにはより多くの宣伝と認識の向上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教育など様々な活動を経て形成された街の共同体とともに集会を開き始め、認識の向上および街の活性化のためのイベントを開催するようになった。これを機に、街に住む多くの人々が主体として定期的に意思疎通するようになり、住民と学生が交流する場が作られた。さらに、学校との長い話し合いの結果、学校の塀が取り壊され、周辺地域とつながる小さな道が作られた。

3. ともに、街に色を与える

街の人々の暮らしとニーズに合う固有の「色」を見つけるために集まった人々はより多くの人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はかり、街に色を与えるための活動を継続している。定期的な集会を通して、街の問題を話し合い、月1回の街祭りを企画・運営することで、より多くの人々と関係を結び、交流しようとしている。また学生たちは授業を通して何度も街と隣人を訪れ、諸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様々なアイデアを提案している。このような試みは実現されない場合においても、街と学校の関わりを持続させ、学生に街の一員として地域に関心を持たせ、自身の役割を考えさせるという点で大きな意味を持つ。こうした努力が重なり、今年の初めには「文化創作団」という学生の集まりが形成された。都市建築研究室と様々な分野の学生が集まったこの会は、街の変化し続けるための自分たちの役割を考え、街の至る所にある余剰地を利用して学校周辺の環境改善のためのキャンペーンを企画している。

おわりに

多くの人々の暮らしと夢を反映した街の色を見つけ、それを街に与えることは一度に成し遂げられない。街のために集まった人々が互いの夢を共有し、小さくても自分にできる改善を約束し実践する一連の過程を繰り返す時、街は人々の夢見る色へと徐々に染まっていく。自分と隣人の夢が溶け込んだ多彩な色を持つ街を作るために、街の一員として、また街を研究する者として様々な活動と試行錯誤を続けていきたい。

마을에 색을 입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대학마을을 중심으로-

이지민 (성균관대학교 · 석사과정)

공동연구자: 이지연, 김수연

인사말

마을은 저마다 고유의 색을 가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색’ 이기도 하며, 그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 특색,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을이 가지는 오랜 역사와 풍경,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형성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 움직임들로 인해 변해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에 ‘색’을 입힌다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필요, 요구를 반영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속해있는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 도시건축연구실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 고유의 색을 찾고,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내가 살고,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 고유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을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성균관대학교와 대학마을 이야기

이번 발표에서 살펴볼 성균관대학교와 대학마을은 서울의 남쪽, 수원시 율전동(栗田洞)에 위치해있다. 율전동(栗田洞)은 예로부터 밤나무 밭이 많아 밤밭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지명이며, 1980 년대에 들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성균관대학교는 1978 년에 이곳에 자리잡게 되었고, 1970 년대에 실시된 서울의 인구 분산 정책으로 여러 위성도시가 건설되고, 광역 교통이 발달하면서 학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아파트, 집들과 학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각자의 담장을 높게 두른 채 단절되어 있었다. 길의 많은 부분은 담장에 막히고, 담장에 면한 길은 어둡고 노후화 되어갔다. 이로 인해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밤이면 쓰레기가 가득하고, 차로 인해 위험한 거리가 되어갔다. 사람들 간의 소통의 부제도 하나의 문제였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시간보다 서울 등 마을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가 마을에서 느끼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다.

2. 마을이 색을 찾아가는 과정

2011 년 2 월, 성균관대학교 도시건축연구실은 마을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7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과 학교, 주민들과 함께 거리를 개선하고, 마을의 색을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2011 년, 관계의 시작은 주민센터와 지역대학의 주도로 시작된 주민 교육이었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는 주민들과 마을의 과제와 자원을 발굴하고, 특색 없고, 노후화된 거리를 개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과 대학, 행정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개개인은 쓰레기 줍기, 길 청소, 점포 앞에 화분 가꾸기 등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약속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자 거리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거리의 경관이 개선되고 자투리 공간이 쉼터로 조성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만들어졌다.

개선된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교육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형성된 마을의 공동체는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인식 개선 및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축제를 계기로, 마을 내 다양한 주체들은 정기적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마을사람들과 학생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와의 긴 논의 끝에 학교의 담장이 열리고, 학교 주변 거리와 학교를 연결하는 작은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 함께, 마을에 색을 입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필요를 담은 마을 고유의 '색'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을에 색을 입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월 1 회 거리 축제를 기획/운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과 이웃을 만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마을과 학교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며, 학생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올해 초에는 '문화창작단'이라는 학생모임이 형성되었다. 도시건축연구실과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모인 이 모임은 마을의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학생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마을 곳곳의 자투리 공간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기는 마을의 색을 찾고, 그 색을 마을에 입히는 일은 단번에 완성될 수 없다. 마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작지만 스스로의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할 때 마을은 사람들이 꿈꾸는 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간다. 나와 내 이웃의 꿈이 물드는, 다채로운 색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에 대해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여러 활동과 고민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路地中心の修復型居住地の整備

ブッジョン
—北亭城郭街を中心に

イギフン (成均館大学・博士課程)

序論

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と朝鮮戦争、近代化を経て都市の人口は急増し始めた。結果、既存の居住地域では人口が収容しきれなくなり、それまで人々が住んでいなかった丘陵地、線路沿い、堤防周辺などに新たな居住地が作られた。こうして生まれた街と路地は統一的な計画ではなく、無計画的、連鎖的、持続的な過程を通して形成された。長期間にわたって出来上がった地域にはその場所だけ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が生まれ、なかでも共用空間として住民たちが意思疎通を行っていた路地は街の歴史や趣、人々の暮らしと物語を収める空間となった。

1980年代前後、急激な近代化、産業化、都市化により、合理的かつ機能的に都市の構造を変えるための計画が進められた。汚い空間として打ち捨てられた路地は、次第に綺麗で車が通れる道路に改変され始めた。最終的に路地のあった空間は変化も深みもない、画一的かつ非人間的な空間に変貌した。路地空間の物理的な喪失は、その場所を基盤とした住居文化と共同体の喪失までも呼び起こした。

ところが近年、こうした改造の中で残された路地が再び注目されている。自身が住む街と共同体の特性を活かして路地固有の地域性を形成し、また文化・芸術・商業といった領域と結合して魅力的な空間に変わるなど、路地の価値を活用する都市整備の方法が脚光を浴び始めた。しかし、路地とその周辺の居住地はいまだ家屋の老朽化、インフラの不足、通りの狭さゆえの防災・防犯上の問題などを抱えており、総合的な整備が必要な状況である。それまではこのような居住地を整備するために、大半が全面撤去と再開発を通して一挙に居住地を整備する方法がとられてきた。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整備方式は地域性の喪失、既存の共同体の解体など、様々な問題を発生させ、これらを解決するための新しい整備方法についての論議が行われている。

本発表では路地の持つ意味と価値を確認し、既存の全面撤去型の整備方式から離れて路地の価値と形態を保存しながら地域を整備していく「路地中心の修復型居住地の整備」について考察する。

1. 路地の意味と価値

路地は以下三つの価値を持つ。第一に、路地は空間的な価値を持つ。家と密接に関わっている路地は日常生活の小さな部分と調和を成し遂げながら風景を形成した。このような路地は線的かつボリュームの変化を通して多彩な造形を成し、これによって空間の楽しみと深みを与え、また人間的でこぢんまりとした雰囲気のある場所とすることができた。第二に、路地は社会的な価値を持つ。路地は何軒かの家が共有する空間である。互いの生活や感情を分かち合いながら作られる連帯意識は、隣接した家同士の関係を越え、路地で結ばれる地域全体にわたる共同体の密接な関係

を生み出し、強化してきた。第三に、路地は象徴的な価値を持つ。路地は個人の生活史をはじめ、隣人との関係、地域共同体の文化を内包する空間と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備えた場所である。さらに、過去の記憶と現在のその場所に対する感情が共存する路地は、人々にノスタルジーを感じさせる空間ともいえる。

2. 修復型居住地整備

既存の全面撤去型の居住地整備の方法の限界があらわになったことにより登場した修復型整備は、地域の物理的特性だけでなく、社会的・経済的要素まで考慮し、小規模で漸進的に地域を整備していく構想にもとづく整備である。修復型整備の主要な方向性としては ①地域の場所性の考慮 ②漸進的な過程を通じた整備 ③空間の特性に従う小規模な整備 ④整備過程への住民の直接参加 ⑤物理的な環境(インフラ、建築物など)整備 ⑥社会的・経済的要素と共同体を考慮した整備があげられる。

3. 路地中心の修復型居住地の整備

路地中心の修復型居住地の整備は既存の形態や価値の保存を中心に、修復型で居住地を整備することである。修復型整備は地域性を尊重し、漸進的な過程の中で整備していくため、綿密な現状調査から場所に合った整備計画までの各プロセスを経て進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保存価値のある路地かどうかを判断(地域診断)し、どこを(路地診断)、どのように(整備計画)保存・整備するか大まかな方向性を決め、これらを含む基本的な整備プロセス(①地域基礎調査 ②路地現況調査 ③路地生活圏区分 ④生活圏別特性把握 ⑤整備計画樹立)を提案し、各プロセスの主要整備方法を見ていく。

4. 北亭城郭街での適用

北亭城郭街は 1970-80 年代に城郭街として自然発生的に形成された都市組織と、近・現代の居住地の姿をよく示している地域である。街が形成された後、今日までその姿を守ってきたため、そこには様々な共同体が存在し、路地では共同体による活発な活動が行われている。こうした様子から、北亭城郭街の路地には物理的価値だけでなく、社会的・象徴的価値も存在することが分かる。しかし、住宅再開発のための整備区域の指定、文化財と国有地・公有地の存在によって地域内建設事業がなかなか行われず、徐々に住居環境が悪化している状況である。漢陽都城ハンヤンや尋牛莊シムニョンといった文化財や丘陵地に自然と形成された街の景観を保存しながら居住環境を改善するためには、全面撤去型の再開発ではなく修復型で居住地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路地を中心に共同体が作られていく様相と、地域文化が形成された居住地を整備していくプロセスや方法を見てきた。これらは今後の地域性と共同体を守りながら居住環境を改善していく整備方法の一つとして活用できる。

골목길 중심의 수복형 주거지 정비 -북정성곽(北亭城郭)마을을 중심으로-

이기훈 (성균관대학교 · 박사과정)

인사말

해방과 한국전쟁,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며 도시의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주거지의 수용력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구릉지, 철로변, 제방 등에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마을과 골목길은 일단의 계획을 통한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 연쇄적,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장소정체성이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공용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던 골목길은 마을의 역사와 정취,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이 되었다.

1980년대 전후,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도시구조를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 골목길은 불량하고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점차 반듯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개편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골목길이 있던 공간은 변화와 깊이가 없는 공간, 획일적인 공간,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골목길의 물리적인 공간의 상실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주거문화와 공동체의 상실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최근 들어 골목길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골목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상업의 영역과 결합되어 매력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등, 골목길의 가치를 활용한 방법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주거지는 여전히 주택의 노후화, 기반시설 부족, 좁은 골목길로 인한 방재·방범상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인 주거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전면철거와 재개발을 통해 단번에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방식은 지역의 장소성 상실, 기존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한계점과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골목길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골목길의 가치와 형태를 보존하며 지역을 정비해나가는 「골목길 중심의 수복형 주거지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골목길의 의미와 가치

첫째, 골목길은 공간적인 가치를 지닌다. 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골목길은 일상 생활의 작은 부분과 조화를 이루며 골목길의 풍경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골목길은 선형의 변화와 볼륨의 변화를 통해 다채로운 조형성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의 즐거움과 깊이감을 줄 수 있었고 아기자기하고 인간적인 분위기의 장소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골목길은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다. 골목길은 여러 채의 집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며 형성되는 연대의식은 인접한 집들 간의 관계를 넘어 골목길로 이어진 지역 전체의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였다. 셋째, 골목길은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 골목길에는 개인의 삶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지역 공동체의 문화가 담겨진 공간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장소이다.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골목길에 대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골목길은 사람들에게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2. 수복형 주거지 정비

기존 전면 철거형 주거지 정비수법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수복형 정비는 지역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소규모,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해나가는 개념을 가진 정비수법이다. 수복형 정비의 주요 방향으로는 [①지역의 장소성 고려 ②공간 특성에 따라 소규모로 정비 ③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정비 ④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⑤물리적인 환경(기반시설, 건축물 등) 정비 ⑥사회경제적 부분과 커뮤니티를 고려한 정비]를 들 수 있다.

3. 골목길 중심의 수복형 주거지 정비

골목길 중심 수복형 주거지 정비는 기존 골목길의 형태와 가치 보존을 중심으로 하여 수복형으로 주거지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수복형 정비는 기존 장소의 특성을 존중하며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현황조사에서부터 맞춤형 정비계획까지 일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골목길인지를 판단(지역 진단)하고, 어디를 보존·정비(골목길 진단)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정비(정비계획)할 것인지를 큰 방향으로 하여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비 프로세스[①지역기초조사 ②골목길 현황조사 ③골목길 생활권 구분 ④ 생활권별 특성 파악 ⑤정비계획 수립]를 제안하고 각 프로세스 별 주요 정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4. 북정성곽(北亭城郭)마을에의 적용

북정성곽마을은 70~80 년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성곽마을로서 그 시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도시조직과 근현대 시기 주거지의 모습을 잘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마을이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지켜오고 있는 덕분에 마을에는 다양한 주민 공동체가 존재하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북정성곽마을의 골목길에는 물리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상징적 가치 또한 잘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문화재와 국공유지의 존재로 인해 지역 내 건축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아 점차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양도성(漢陽都城)이나 심우장(尋牛莊)과 같은 문화재와 구릉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아닌 수복형으로 주거지를 정비해야만 한다.

이 적용을 통해서 골목길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문화가 형성된 주거지를 정비해나가는 프로세스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는 추후 지역의 장소성과 커뮤니티를 지키며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정비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